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ctors for Public Library Space Needs

곽 철 완(Chul-Wan Kwak)*

< 목 차 >

- | | |
|-----------------------------|---------------------|
| I. 서론 | 4. 용인죽전도서관에 대한 의견 |
| II.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조사 | IV.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
| III. 데이터수집 및 분석 | 1.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1. 데이터 수집 방법 | 2. 기능별 공간 비율 |
| 2. 응답자 배경정보 | 3. 공간의 배치 |
| 3. 도서관 이용 경험 | V.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건축, 특히 공간구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도서관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기능별 공간비율과 공간배치에 관련된 요인들로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내 활동, 연령, 동반자 형태 등이 있었다. 도서관내 주요 활동은 독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연령별로 도서관 내 활동의 차이가 있어 연령별로 적합한 공간의 확보가 요구되었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지역주민 요구조사, 설문지법, 공공도서관 건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for library space programs through user needs assessments in order to apply a library construction. Research method used was a questionnaire and subjects were residents and library users lived in Yongin where a new library was constructing. The results show that library use behavior, age, and user companions are identified as factors to influence to both functional space ratio and functional space arrangement. Reading in libraries is major activity and many subjects went to library with family so that family space is needed. Space for variable ages, also, is needed because of different needs based upon ages.

Key Word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Space Needs, Needs Assessments, Questionnaire, Public Library Architecture

* 강남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ckwak@kangnam.ac.kr)

• 접수일: 2005년 8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9월 5일

I. 서론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공간, 평생학습공간, 지역문화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선진 각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보문화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내 새로 건립하는 몇몇 공공도서관은 사전 조사연구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건립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일부부분이며 지역문화공간이며 지역주민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공공도서관 건립의 출발점이 되며 동시에 기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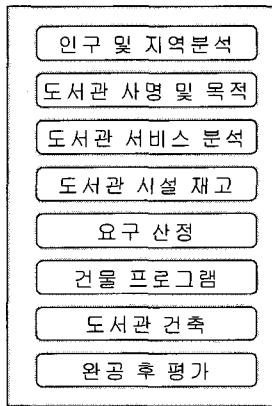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요구는 매우 다양한 측면으로 표현될 수 있다. 도서관 위치 결정에서부터 도서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공공도서관 위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은 우선 도서관이 위치할 부지를 확보한 후에 도서관 건립이 추진된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도서관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설계할 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 최근에 건립된 공공도서관에서 겪는 여러 문제 중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열람공간에 대해 공공도서관을 설계하는 쪽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의 공부방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열람실을 공간구성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개관한 이후 지역주민들은 일반 열람실 설치를 요구하여 어느 도서관은 설계를 변경하여 일반 열람공간을 만들기도 하였다. 어떤 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주 기능이 공부방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간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조사하여야 할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그 결과가 도서관 건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건축, 특히 공간구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여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서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용인죽전도서관의 조사데이터¹⁾를 활용하였다.

1)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인죽전도서관 건립을 위한 주민참여설계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용인 : 강남대학교, 2005), pp.9-64.

II.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조사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을 건축하려 할 때, 크게 8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²⁾. 이중 도서관 사서들이 관여해야 할 단계는 1단계 인구 및 지역분석에서 5단계 요구산정까지와 마지막 단계인 8단계 완공 후 평가이다. 지역주민의 요구조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단계는 1단계인 인구 및 지역분석과 3단계인 도서관 서비스 분석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지역분석과 도서관 서비스 분석으로 한정하였다.



〈그림 1〉 공공도서관 건축 계획 단계

국내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위해서 사전에 건립 타당성 조사³⁾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요구조사가 병행되어 수행되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들 조사 중에서 도서관 공간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기존의 공간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와 새로 공공도서관이 신축된다면 어느 공간 혹은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안성시립중앙도서관의 경우, 크게 6가지의 공간(휴식, 지역문화전시, 교양/취미, 인터넷이용, 어린이교육, 개인학습)으로 구분하여 신축 도서관에 보완되어야 할 공간을 질문하였다⁴⁾. 동시에 신축 도서관에서 보완되어야 할 기능으로 6가지 기능(지

2) Nolan Lushington, *Libraries Designed for Users : A 21st Century Guide*(New York : Neal-Schuman Publishers, 2002), pp.21-34.

3) 고양시, 중산도서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 2003., 군포시, 군포시립중앙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도서관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2003.,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가칭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2004., 파주시, 교하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2004., 평택시립도서관, 도서관 부지 타당성 및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 2005. 등이 있음.

4)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가칭 "안성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인 : 동연구소, 2004), p.119.

역문화전시, 교양/취미, 인터넷 이용, 어린이 교육, 행정정보이용, 산업정보이용)으로 나열하여 공간과 기능을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1/3이 교양/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기능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개인학습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청도 10%정도를 차지하였다.

파주교하도서관의 조사에서는 도서관 공간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목적을 조사하였는데, 크게 5가지 항목(도서/잡지를 읽음, 취미/교양활동, 도서 대출/반납, 취업/자격시험 준비, 자녀 독서)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⁵⁾. 이와 동시에 도서관에 가서 하는 일을 7가지 항목(도서/잡지를 읽음, 컴퓨터 이용, 휴식을 취함, 교양강좌 참가, 정보상담, 자신의 책으로 공부, 기타)으로 구분하여 이용 목적과 비교하였다. 이중 응답자의 50% 정도가 도서관 이용 목적을 취업/자격시험 공부를 위함이라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4%나 되었다. 이 결과는 지역주민의 성향 파악과 도서관의 공간 구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택시립도서관의 조사는 파주교하도서관과 비슷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⁶⁾. 하지만, 결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 목적을 자격/취업시험 공부 혹은 학교 공부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응답자는 전체의 25%를 차지하였다. 동시에 도서관에서의 주된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책으로 공부한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25% 정도였다. 이 결과는 파주교하도서관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설문조사 장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도서관의 일반 열람실에서 조사하였다면, 도서관 이용 목적이나 도서관내 활동이 자신의 책으로 공부한다는 항목에 집중될 것이며, 일반 주민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전체 이용자 중에서 일반열람실 이용자 비율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 열람실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시간이 다른 이용자에 비해서 길며, 거의 매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특정 연령에 조사가 집중되었을때 조사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사에 의하면 도서관에 불만이 많은 연령층으로 30~35세를 제시하였는데⁷⁾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설문조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Ⅲ. 데이터수집 및 분석

1. 데이터 수집 방법

한국토지공사에서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역에 용인죽전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5) 파주시, 교하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파주 : 파주시, 2004), p.126.

6) 평택시립도서관, 도서관 부지 타당성 및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평택 : 평택시립도서관, 2005), pp.106-107.

7) 오동근, 장홍섭, 김광석,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불만족요인과 불평행동-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25-43.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수집된 지역주민의 의견 중,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의 배경정보, 공공도서관의 이용 경험, 용인죽전도서관에 대한 요구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설문지 배포는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조사원이 직접 용인 죽전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과, 둘째 용인수지도서관과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이용자에게 배포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용인죽전도서관 건립에 대한 홍보와 설문지의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에 방문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설문지 배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홍보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설문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죽전에 도서관이 건립된다는 문구가 새겨진 볼펜을 주어서 죽전도서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가정 방문은 용인죽전도서관 건립예정지 인근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하여 원거리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절차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설문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도록 한 후, 조사원들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었다.

가정 방문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1,657부였으며, 도서관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지는 275부로 합계는 1,932부였다. 약 3,000여 가구를 방문하였으나 그 중 약 30%는 외출중이어서 설문지를 배포할 수 없었으며, 약 400여 가구는 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하였다.

2. 응답자 배경정보

총 응답자 1,932명 중에서 여성이 1,349명으로 전체의 69.8%, 남성이 519명으로 26.9%, 그리고 무응답자가 64명으로 3.3%를 차지했다. 나이별로 구분하면, 30~39세가 728명으로 전체의 37.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40~49세가 435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50세 이상으로 17.3%, 네 번째는 20~29세로 13.8%, 그리고 20세 미만이 6.7%를 차지했으며, 무응답이 2.0%가 되었다.

직업으로 구분하면, 주부가 974명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이 297명으로 15.4%, 회사원이 171명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자영업, 교육자, 공무원 순이었다. 그 밖에 직업이 10.8%, 무응답자가 6.0%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가족관계는 4인 가족이 981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3인 가족이 439명으로 22.7%, 5인 가족이 200명으로 10.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2인 가족이 8.3%, 6인 이상 가족이 2.9%, 혼자 사는 사람이 0.9%, 무응답이 4.1%였다. 응답자 중에서 어린이와 같이 생활한다는 응답자는 1,01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2.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어린이가 1명이

라 응답한 사람은 463명으로 응답자의 45.7%이며, 2명이라 응답한 사람은 496명으로 49.0%를 차지하고 있었다. 3인 이상 어린이와 같이 생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4명으로 응답자의 5.4%에 불과하였다. 즉 어린이와 같이 생활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대부분은 1명 혹은 2명의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총 응답자 1,932명 중에서 청소년과 같이 생활하는 가정에 살고 있다는 응답자는 54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청소년 1명과 생활한다는 응답자는 281명으로 응답자의 51.6%이며, 청소년 2명과 생활한다는 응답자는 245명으로 응답자의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청소년이 3명 혹은 4명인 응답자는 19명으로 응답자의 3.5%에 불과하였다. 청소년 역시 앞의 어린이와 유사한 형태로 1명 혹은 2명과 함께 생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1〉 응답자의 성별, 나이, 직업 및 가족수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1,349	69.8
	남성	519	26.9
	무응답	64	3.3
	합계	1,932	100
나이	20세 미만	130	6.7
	20~29세	266	13.8
	30~39세	728	37.7
	40~49세	435	22.5
	50세 이상	355	17.3
	무응답	38	2.0
	합계	1,932	100
직업	주부	974	50.4
	회사원	171	8.9
	공무원	19	1.0
	교육자	48	2.5
	자영업	100	5.2
	학생	297	15.4
	기타	208	10.8
	무응답	115	6.0
	합계	1,932	100
가족수	2인 가족	160	8.3
	3인 가족	439	22.7
	4인 가족	981	50.8
	5인 가족	200	10.4
	6인 이상 가족	56	2.9
	1인 거주	17	0.9
	무응답	79	4.1
	합계	1,932	100

응답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죽전1동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33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9.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죽전2동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31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6.3%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응답자들은 상현동, 풍덕천2동, 풍덕천1동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즉 전체응답자의 85.3%가 죽전도서관이 건립되는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 1,932명 중에서 680명인 35.2%가 현 거주지에서 6~12개월 거주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응답자 중 429명인 22.2%가 2~5년 동안 거주한 사람들이었으며, 6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들도 348명으로 18.0%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미만 거주한 사람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표 2〉 응답자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구분		빈도	%
거주지역	죽전1동	1,333	69.0
	죽전2동	314	16.3
	풍덕천1동	33	1.7
	풍덕천2동	55	2.8
	수지 기타지역	91	4.7
	구성읍	18	0.9
	분당	25	1.3
	기타	43	2.2
	무응답	20	1.0
합계	1,932	100	
거주기간	6개월 미만	348	18.0
	6~12개월	680	35.2
	1~2년	188	9.7
	2~5년	429	22.2
	5년 이상	187	9.7
	무응답	100	5.2
	합계	1,932	100

3. 도서관 이용 경험

가.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 및 빈도

총 응답자 1,932명 중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64.9%인 1,254명이었으며, 이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60명으로 34.2%를 차지하였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44명 중(1,254명 중 10명은 무응답)에서 433명인 34.8%는 한달에 1~3회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256명(20.6%)은 일주일에 1~3회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일년에 4~6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8.6%, 일년에 1~3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6%이었다. 또한, 일주일에 4회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4%나 되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도서관에 갈 때 주로 가족과 함

께 가는 경우가 응답자의 46.9%인 588명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주로 혼자서 도서관에 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34.4%인 431명이었으며, 친구와 같이 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230명으로 응답자의 18.3%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이용자의 50% 정도가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 공간에서 가족을 위한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 660명 중 629명만 응답하였는데, 응답자 71.9%인 452명은 지역에 도서관이 없거나 너무 멀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10.8%는 도서관 이용할 시간이 없어서 이용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도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표 3〉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경험

	이용 경험	빈도	%
이용경험	있다	1,254	64.9
	없다	660	34.2
	무응답	18	0.9
	합계	1,932	100
이용회수	일주일에 4회 이상	80	6.4
	일주일에 1~3회	256	35.2
	한달에 1~3회	433	9.7
	일년에 4~6회	231	22.2
	일년에 1~3회	244	9.7
	합계	1,244	100
도서관 이용 동반자	가족과 함께	588	46.9
	친구와 함께	230	18.3
	혼자서	431	34.4
	기타	5	0.4
	합계	1,254	100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	도서관 없거나 멀다	452	71.9
	원하는 자료를 직접 구한다	43	6.8
	다른 문화시설을 이용한다	32	5.1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	68	10.8
	기타	34	5.4
	합계	629	100

나.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53명 중(1,254명 중 1명은 무응답)에서 도서관에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서 간다고 응답한 사람이 683명으로 응답자의 54.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자녀교육 부분으로 응답자의 14.3%인 179명이였다. 그리고 취업 혹은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간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13%인 163명을 차지하였다. 이를 보면,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70% 정도(독서/대출

및 자녀교육)가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목적

이용 목적	빈도	%
독서/대출	683	54.5
취미활동	81	6.5
자녀교육	179	14.3
학교공부	136	10.9
취업준비	163	13.0
기타	11	0.9
합계	1,253	100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용 목적을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나이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세~49세의 응답자들의 80% 이상은 도서관에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서 혹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도서관에 가고, 29세 이하의 응답자들의 60.4%는 학교공부나 취업준비를 하기위해서 도서관에 간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50세 이상의 응답자 80% 정도가 독서 혹은 취미활동, 여가활동, 동아리활동을 위해서 도서관에 간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나이별 성향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내용이 된다. 즉,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최소한 4개 연령별 계층(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 중년, 노년)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 이용 목적을 도서관 회수와 비교하면, 뚜렷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 도서관을 거의 매일같이 이용한다는 응답자 50%이상의 도서관 이용목적은 취업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그 밖에 일주일에 1~3회 이하 이용한다는 응답자 50% 이상은 도서관 이용목적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대출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취업준비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 도서관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불과 25%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거의 매일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소수의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특정 공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표 5〉 응답자의 도서관 이용 빈도와 이용 목적 비교

이용 회수	이용 목적					
	독서/ 대출	취미 활동	자녀 교육	학교 공부	취업 준비	기타
일주일에 4회 이상	17	5	3	13	40	1
일주일에 1~3회	143	14	32	35	31	1
한달에 1~3회	263	24	60	47	38	1
일년에 4~6회	118	19	40	20	31	2
일년에 1~3회	138	16	40	21	21	6
합계	679	78	175	136	161	11

다. 지역 공공도서관내 활동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51명 중(1,254명 중 3명은 무응답)에서 64.6%에 해당하는 808명은 도서관에 주로 책을 읽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0.3%인 254명은 자신의 책으로 공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밖에 문화강좌 참가가 7.0%,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3.3% 등을 차지하였다. 대략 도서관 이용자 70% 정도가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거나 신문 혹은 잡지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도서관내 활동

도서관내 활동	빈도	%
신문/잡지 읽음	41	3.3
독서	808	64.6
비디오 감상	7	0.6
문화강좌 참가	87	7.0
컴퓨터 이용	26	2.1
자신의 책으로 공부	254	20.3
휴식	10	0.8
기타	18	1.4
합계	1,251	100

도서관 이용 목적과 도서관에서 활동을 비교하면,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관 이용행태를 발견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 목적이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84.9%는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도서관에서 취업시험, 자격시험 공부를 위해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75.5% 만이 자신의 책으로 공부한다고 응답하였고, 약 20%는 주로 도서관 책을 이용하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비슷한 행태가 학교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22%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공부방 형태의 일반열람실을 축소하고 자료열람실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 7〉 응답자의 도서관내 활동과 이용 목적

도서관내 활동	도서관 이용 목적					
	독서/대출	취미 활동	자녀 교육	학교 공부	취업 준비	기타
신문/잡지 읽음	24	4	8	2	2	1
독서	578	29	140	28	31	0
비디오 감상	2	2	0	2	0	0
문화강좌 참가	30	35	18	2	1	1
컴퓨터 이용	12	3	1	4	5	1
자신의 책으로 공부	24	3	7	95	123	2
휴식	4	1	3	0	1	1
기타	7	1	2	3	0	5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의 80%는 도서관에서 주로 책을 읽고 있었으며, 혼자서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의 55% 정도도 도서관에서 주로 책을 읽고 있었다. 반면에 혼자서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의 32% 정도가 도서관에서 주로 자신의 책으로 공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들이 모여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표 8〉 응답자의 도서관내 활동과 동반자 유무

도서관내 활동	동반자 유무			
	가족과함께	친구와함께	혼자서	기타
신문/잡지 읽음	18	4	19	0
독서	468	104	233	3
비디오 감상	2	3	2	0
문화강좌 참가	45	16	26	0
컴퓨터 이용	7	12	6	1
자신의 책으로 공부	28	86	137	1
휴식	8	1	1	0
기타	11	2	5	0

4. 용인죽전도서관에 대한 의견

가. 이용

총 응답자 1,932명 중에서 죽전도서관이 신축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9.1%인 1,721명이었다. 반면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80명으로 9.3%였다. 이들 180명 중 167명만이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들 중 63.5%인 106명은 도서관이 너무 멀어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풍덕천2동, 상현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 새로운 죽전도서관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7명으로 16.2%를 차지하고 있었고,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4.4%인 24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응답자의 90% 정도가 죽전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1,711명(1,721명에서 10명은 무응답) 중에서 걸어서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59.1%로 1,011명이었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78명으로 16.2%에 불과하였다. 이중 208명은 죽전1동과 죽전2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응답자의 83% 정도가 걸어서, 자전거로 혹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죽전도서관 인근에 거주하는 이용 희망자의 10% 정도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용인죽전도서관에서 이용할 자료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 순위 평균은 교양자료, 아동책, 학술자료, 지역정보,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 책을 1 순위로 응답한 사람은 755명이

되었고, 문화교양자료를 1 순위로 응답한 사람은 603명, 전문·학술자료는 263명, 지역정보 자료는 50명, 기타 정보는 36명 순이었다. 이 결과는 죽전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방향이 어린이 책과 문화교양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간 구성 역시 어린이 및 문화교양자료 공간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9〉 신축될 도서관에 대한 이용 의향

	구분	빈도	%
이용의사	있다	1,721	89.1
	없다	180	9.3
	무응답	31	1.6
	합계	1,932	100
이용시 교통편	걸어서	1,011	59.1
	자전거	148	8.6
	대중교통	264	15.4
	자가용	278	16.2
	기타	10	0.6
	합계	1,711	100
이용 1 순위 자료	어린이 책	755	44.2
	문화교양 자료	603	35.3
	전문·학술 자료	263	15.4
	지역정보 자료	50	2.9
	기타	36	2.1
	합계	1,7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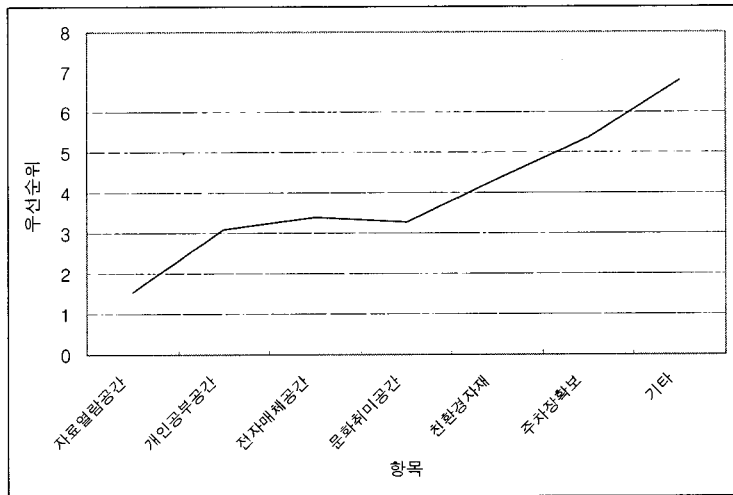
나. 도서관 공간

도서관 공간에 대해서 2가지 형태로 질문을 하였다. 첫째는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설에 대한 질문과 둘째는 신축 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공간에 대한 질문이다.

(1) 예산 배정과 공간

(가) 공간의 우선순위

신축 시 예산 배정에 대한 질문은 총 7개 문항을 제시하고, 7개 문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1순위로 지정한 부분은 자료 열람공간으로 도서관에 소장된 책, 자료 열람 및 개인공부가 가능한 공간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예산을 투입하기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선택한 부분은 개인 공부가 가능한 일반 열람공간이었다. 아래 표는 각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평균값을 도표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료열람공간'은 응답자의 순위 평균이 1.56인데,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 항목에 1 혹은 2를 표시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2〉 도서관 건립에서 예산 투입 우선순위 분포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료열람 공간의 충분한 확보에 순위를 표시한 응답자 중 1 순위로 표시한 사람은 응답자 1,875명 중 1,277명으로 68.1%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2 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330명으로 17.6%에 불과했다. 개인공부 공간의 확보에 순위를 표시한 응답자 중 1 순위로 표시한 사람은 응답자 1,850명 중 252명으로 13.6%를 차지하였지만, 2 순위는 523명으로 28.3%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순위에서 7순위까지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서 일반열람 공간에 대해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항목들은 1 순위 선택이 10% 미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응답자들이 7개 문항(7번째 기타 포함)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 앞의 3번째 혹은 4번째 문항까지는 자세히 읽지만, 5번째, 6번째는 그냥 5 순위, 6 순위로 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나, 주차장 확보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5 순위와 6 순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표 10〉 도서관 건립에서 예산 투입 우선순위(단위: 명, %)

순위 \ 항목	자료열람 공간	개인공부 공간	전자매체 공간	문화공간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주차장
1	1,277(68.1)	252(13.6)	86(4.7)	157(8.5)	88(4.9)	29(1.6)
2	330(17.6)	523(28.3)	411(21.3)	413(22.3)	130(7.2)	52(2.9)
3	142(7.6)	381(20.6)	525(27.2)	477(25.8)	213(11.7)	94(5.3)
4	85(4.5)	327(17.7)	437(22.6)	485(26.2)	347(19.1)	138(7.7)
5	25(1.3)	221(11.9)	226(13.8)	227(12.3)	758(41.8)	297(16.6)
6	16(0.9)	134(7.2)	102(5.3)	86(4.6)	261(14.4)	1,112(62.2)
7	0(0)	12(0.6)	3(0.2)	6(0.3)	16(0.9)	67(3.7)
합계	1,875(100)	1,850(100)	1,830(100)	1,851(100)	1,813(100)	1,789(100)

(나) 설문응답 장소와 관계

자료열람 공간의 충분한 확보에 대한 의견은 설문에 응답한 환경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도서관에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88%가 우선순위 1위(64.2%), 2위를 선택하였다. 이는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느낀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용인수지도서관과 느티나무 어린이 도서관의 자료열람공간이 비좁아 넓은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11〉 설문응답 장소와 자료열람 공간 우선순위(단위: %)

	1	2	3	4	5	6	합계
가정집	68.8	16.6	8.0	4.4	1.3	1.0	100
도서관	64.2	23.6	5.2	5.5	1.5	0	100
합계	68.1	17.6	7.6	4.5	1.3	0.9	100

개인공부가 가능한 일반열람 공간의 충분한 확보에 대하여, 가정집에서 설문을 응한 사람의 11.6%만이 일반열람 공간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도서관에서 설문에 응한 사람의 25.3%가 1순위로 선택하였다. 앞의 자료열람 공간과 비교하더라도, 죽전도서관에 개인학습이 가능한 공간은 일부 필요하다고 본다.

〈표 12〉 설문응답 장소와 일반열람 공간 우선순위(단위: %)

	1	2	3	4	5	6	7	합계
가정집	11.6	28.9	21.4	18.6	12.4	6.6	0.4	100
도서관	25.3	24.5	15.6	12.3	9.3	11.2	1.9	100
합계	13.6	28.3	20.6	17.7	11.9	7.2	0.6	100

(다) 응답자 연령과의 관계

개인공부가 가능한 일반열람 공간의 충분한 확보에 대하여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29세 미만의 응답자들은 개인공부가 가능한 열람공간에 대해서 주로 2순위와 3순위에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40대는 주로 3순위에 응답하였다. 하지만, 30대의 응답자들은 3순위와 4순위에 주로 응답하였다.

문화 공간에 대해 연령별로 비교하면, 5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1순위에 20% 정도가 선택한 반면, 다른 연령층은 10% 미만이 1순위로 선택하였다. 하지만, 30대와 40대의 20% 이상이 주로 2순위와 3순위를 선택하였다.

(라) 도서관 이용 목적과 관계

도서관 이용 목적에 따라 예산 투입 우선 순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교공부를 위해서

도서관을 가는 사람의 45%는 일반열람공간에 1순위를 선택하였고, 취업이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 사람의 37%는 자료열람공간과 일반열람공간에 동일하게 1순위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순위에 대한 분포가 다양하였다. 이 결과는 학생들은 일반열람공간을 중요시하지만, 취업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자료열람공간과 일반열람공간이 대등하게 중요시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유는 학생들은 자신의 책만을 이용하여 공부하기 때문이 굳이 도서관 자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취업이나 자격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 도서관에서 활동과의 관계

도서관에서 주로 많이 하는 활동과 개인공부공간에 대한 순위를 비교하면, 도서관에서 주로 자신의 책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43%가 일반열람공간에 예산 투입 1순위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35%가 2 순위에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도서관은 일반 독서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요구를 표현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자료이용 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책으로 공부해야 할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일반 열람공간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바) 우선순위 사이의 관계

자료열람 공간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40% 정도가 일반열람 공간을 2순위로 선택하였다. 반면 일반열람 공간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의 50% 정도가 2순위로 자료열람공간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자료열람 공간과 일반열람 공간에 대해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응답자들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 혹은 자신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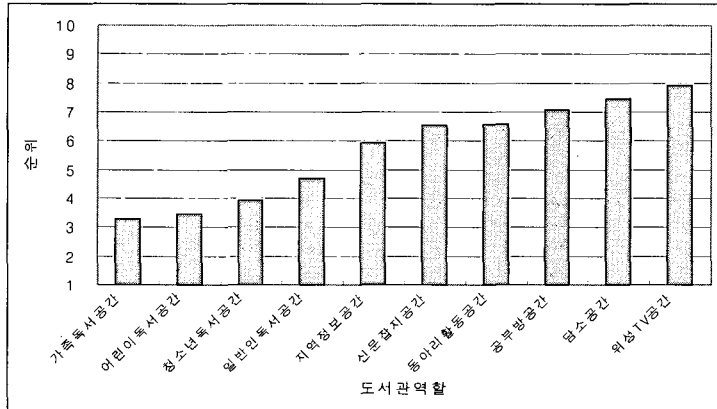
(2) 도서관의 역할

(가) 역할에 대한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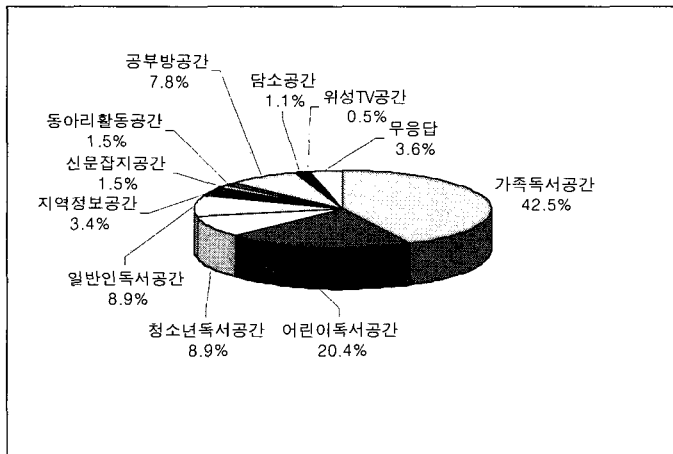
도서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 역할의 우선 순위를 질문하였다. 10가지 항목에 대한 순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가족독서 공간이 최우선 순위였으며, 다음으로 어린이독서 공간, 청소년독서 공간, 일반인독서 공간 순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1순위를 선택한 비율로 비교하면, 가족이 모여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이 42.5%,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이 20.4%, 청소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일반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이 각각 8.9%,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위의 우선순위 평균값과 비교하면 공부방 공간 제공에 1순위를 둔 응답

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특정집단이 도서관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 도서관 역할 우선순위 평균값 비교



〈그림 4〉 도서관 역할 1순위 분포

〈표 13〉 도서관 역할 우선순위(단위: 명, %)

순위	항목	가족독서 공간	어린이독서 공간	청소년독서 공간	일반인독서 공간	공부방 공간
1		821(42.5)	394(20.4)	172(8.9)	171(8.9)	150(7.8)
2		253(13.1)	683(35.4)	365(18.9)	140(7.2)	95(4.9)
3		223(11.3)	241(12.5)	665(34.4)	206(10.7)	71(3.7)
	기타	635(32.9)	614(31.7)	730(37.8)	1,415(73.2)	1,616(83.6)
	합계	1,932(100)	1,932(100)	1,932(100)	1,932(100)	1,932(100)

(나) 연령별 비교

가족독서 공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연령별로 비교하면, 1순위 선택은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그 중 30대와 40대에서 가장 많이 가족독서 공간 제공을 도서관의 역할 1순위라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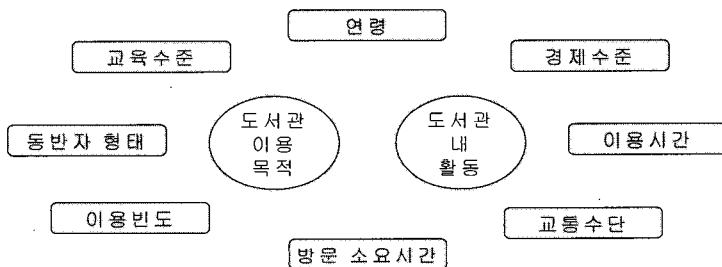
어린이 독서공간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우선순위 2위로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33% 정도가 1순위로 선택하였지만, 2순위가 거의 50% 가까이 되었다. 이는 어린이용 공간을 독립시키기 보다는 가족 중심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공부방 공간에 대해 1~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들 중에서, 20세 미만과 20대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40대에서 공부방 공간에 대해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이 13.8%나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20세 미만이 20대 보다 1순위 선택 비율이 낮은 것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 이 이유를 추론하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소장되어 있고, 그 책들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0대는 도서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40대 역시, 도서관은 공부방으로 여기는 세대이다. 도서관은 오늘날 존재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행동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이 요구된다.

IV.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1.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 주요 요인들을 정리하면 <그림 5>와 같다. 도서관 이용 목적과 도서관내 활동은 앞서 언급한 <그림 1> 공공도서관 건축 계획 단계의 도서관 서비스 분석에서 다루는 핵심 사항이다. <그림 5>의 요인이 공간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공공도서관 공간구성과 관련된 요인

2. 기능별 공간 비율

공공도서관 이용자 공간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크게 성인용 공간과 어린이용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 성인용 공간은 일반자료, 참고자료, 비도서자료, 잡지 및 신문, 지역정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어린이용 공간 역시 성인용과 비슷하게 구분되며, 여기에 부모를 위한 공간, story telling 공간이 첨가된다. 이들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림 5>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도서관 이용목적과 도서관 내 활동이 되며, 여기에 이용자의 연령, 도서관 이용시 동반자 형태 등이 포함된다. 용인죽전도서관의 경우, 대략 65%가 독서를 하며, 3%가 신문 혹은 잡지를 읽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문화강좌에 참가하는 사람이 7%를 차지하였다. 이는 공간의 많은 부분을 독서가 가능한 공간으로 할당해야 하며,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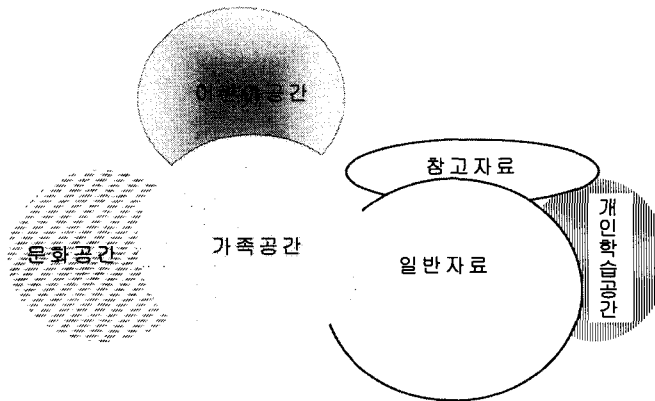
또한 지역의 거주자 연령에 따라 도서관 이용 목적이 다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간구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용인죽전도서관의 경우, 29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의 3개 집단이 도서관 이용 목적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들 3개 집단과 어린이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30-40대의 주민들은 가족독서공간을 선호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은 문화공간에 관심이 있었으며, 29세 미만은 개인학습공간을 선호하고 있었다.

동반자 형태는 공공도서관에 어느 공간이 필요하며 그 공간의 넓이는 어떠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용인죽전도서관의 경우, 응답자의 50% 정도가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가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공간의 배치

기능별 공간의 비율이 결정된 후, 각 공간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공간의 배치는 이용자의 도서관 내 활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반자 형태가 영향을 미친다. 용인죽전도서관의 경우, 개인학습공간을 원하는 사람들 중 학생들은 자신의 책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인들은 자신의 책과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는 개인 학습공간과 자료공간이 서로 인접하게 위치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동반자 형태의 경우, 가족 위주의 이용이 많다면 가족열람공간과 어린이 공간이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족열람공간은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혼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공간과 분리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6>은 용인죽전도서관 조사를 기초로 작성된 공간구성이다.

8) Lushington, *ibid.*, pp.38-46.



〈그림 6〉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성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공간구성에 관련된 주요 요인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행태와 의견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된 요인들은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내 활동, 연령, 동반자형태 등이 공공도서관의 기능별 공간 비율 결정과 기능별 공간의 배치에 관련되어 있었다.

공간의 비율에서는 도서관내 활동을 근거로 주로 도서관내의 활동 중심으로 공간을 크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연령과 동반자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공간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 기능별 공간의 배치에서도 연령과 동반자의 형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 주민의 이용행태에 따라 공간 사이의 인접정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추후 과제로는 자료열람공간에서 공간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서가와 열람좌석과의 관계와 서가의 배열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별로 정보요구가 다르며 이용행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실버세대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서 정보탐색행동에 기초한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